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55호 [부제 제25498호] 주제 105 (2016)년 12월 20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마식령스키경기-2016》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용대한 강령을 실현해나가는
진군길에 산악같이 펼쳐
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이
만남을 과감히 박차며 자력
자강의 창조대전, 만리마속
도향조대전을 힘있게 벌림
으로써 총정의 200일전투
에서 위대한 대승리를 이룩
한 격동적인 시기에 《마식령
스키경기-2016》이 성
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마식령스키경기-2016》
을 관람하시였다.

황병서동지, 최룡해동지,
리수용동지, 오수용동지,
리영길동지, 리일환동지,
김용수동지, 조용원동지,
한광상동지, 박정현동지,
마원춘동지와 도당위원장
들, 각계층 군중들이 경기를
함께 보았다.

돌아내리기, 스키조약,
크게돌아내리기, 내리지치
기종목으로 진행된 스키경기에는 조선
인민군의 메봉산팀, 량강도의 사자봉
팀, 자강도의 장자산팀, 함경북도의
판모봉팀, 함경남도의 성천강팀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경기장에 도착하시자 선수들과 관람자
들은 주제제국의 강화발전과 인민들의
문명한 생활을 위해 끝없는 헌신과
고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꼭꼭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김일국 체육실으로부터 경기진행계획과
선수들의 준비정형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마식령스키경기-2016》을
보시였다.

경기종목과 팀의 명칭, 선수의 이름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선수들이 진행하는 스키경기
를 보니 사람들의 용감성과
대담성을 키워주고 민첩성도
높여주며 체력을 전면적으로
발달시키는 체육종목인 스키
종목에 큰 힘을 넣는것과
함께 스키운동을 대중화,
생활화하면 앞으로 세계적인
스키강자들을 얼마든지 배출
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체육은 조국의 존엄을
떨치고 인민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데서 그 무엇으로도 대신
할수 없는 역할을 한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체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김형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남녀스키선수들이 참가하
여 경시에 변마한 체육기술
과 불굴의 무지를 남김없이
시위한 경기가 성과적으로
끝나고 시상식이 있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
원장인 최룡해동지가 1등
을 쟁취한 조선인민군의 메봉산팀과
선수들에게 우승컵과 금메달, 2등을
쟁취한 량강도의 사자봉팀 선수들에
게 은메달, 3등을 쟁취한 자강도의
장자산팀 선수들에게 동메달을 수여
하였다.

경기참가자들은 《마식령스키경기
-2016》을 직접 보기하시고 혁명
명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자기들의 경기를 보아주시며 대개같은
은덕을 베풀어주시고 나아갈 앞길을
확�히 밝혀주시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면서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체육강국건설수상실현에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
였다.

본사정치보도반

번호를 알려주는 방송원의 소개와 함께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사진이 대형
전광판에 전시되였다.

먼저 한명의 출발한 선수들이 6m 또
는 15m까지의 간격으로 600m 구간에
설치한 수직개의 기문대를 실수없이 들
어내려 결승선을 통과한 기록을 측정하
여 순위를 결정하는 돌아내리기경기가
진행되였다.

높은 기술과 정황판단능력, 튼튼한
육체적준비와 대담성, 침착성, 고도의
민활성을 요구하는 돌아내리기경기에서
매 팀 선수들은 급경사면을 따라 용용
하게 뛰어놓는 기발함을 제치있고 기백
있게 돌아내리며 훌륭한 동작들을 펼쳐
보였다.

선수들이 출발하여 수직m 직선주로를
지쳐내리다가 조약하여 비행한 거리를

측정한 다음 순위를 결정하는 스키조약
경기가 시작되자 경기장의 열기는 더한
층 고조되였다.

관람자들은 선수들이 아슬아슬한 공
중날기와 착지동작을 훌륭히 수행할 때
마다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전리
혜안의 예지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1949년 1월에 스키
협회가 창립되고 1965년에는 국제스
키련맹에 가입하였다고 하시면서 세계
적으로 스키운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그 기술도 급속
히 발전하고있는데 맞게 스키종목을
하루빨리 세계수준에 끌어올려 국제
경기들에서 당당히 우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선수들이 너비 4~8m, 길이 10m
간격으로 600m 구간에 설치한 수직조
의 기문대를 실수없이 돌아내려 결승
선을 통과한 기록을 측정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크게돌아내리기경기도 선수
들의 드높은 경쟁속에 치열하게 진행
되였다.

스키경기의 절정을 이루는 내리지치
기경기가 시작되였다.

번개같이 날아내려 결승선을 통과한
선수들이 펴시있게 제동지지기기술을
보란듯이 파시하며 일으키는 눈갈기가
마식령스키경기의 이채로운 풍경을 더
해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선수
들의 폭발적인 활강경주를 보시면서 용
감한 선수들의 모습이 정말로 인상적
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송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새 역사를 펼쳐주는 업적 세세년전 전해가리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사무치는 그대들이 장선에 넘쳐나는 다섯번째의 12월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지켜 경애하는 원수님과 함께 하고 애를 붙이고 억척같이 길어온 승리와 영광의 길은 불이겨오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나라 아이들이 북돋워 주는 행복의 노래가 뜨겁게 울린다.

한정생 후대사랑을 위하여, 사랑하는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주시고, 사랑하는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주시고, 사랑하는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주시고...

위대한 경도, 불멸의 업적

우리의 아버지 김정은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울 장교로 바쳐오신 아버지장군님께서 류담터 사랑하시고 출제부르시던 노래 《세상에 부름없어라!》 위대한 장군님의 넋을 더 활짝 꽃피우시려 송고한 후대사랑, 미래 사랑의 새 역사를 펼치시며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내 조국의 맑고 푸른 하늘가에 더 높이, 더 크게, 더 광범히 울려주신 우리 아이들이 노래와 더불어 온 나라 인민은 심장으로 보고있다.

이 땅우에 줄기차게 흐르는 영원한 태양의 역사를!

우주를 헤치고 지구촌 통째로 휘몰아쳐 조국의 국경을 남을 따라 강해졌다. 세상을 날래우며 이 땅우에 펼쳐진 경이적인 현실은 통째로 우리 아이들의 것이었다.

나라의 꽃봉오리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선에서 쌓인 피로를 조금이라도 추시며 잠시라도 기뻐하시라고 아이들은 이제 겨우 끝을 익힌 손으로 그따위박박 원수님께 올리는 서론 편지를 썼다. 바로 그 편지마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아주시고 피할아, 흔하아하는 애듯한 무뎠고 함께 그에게서 배워들이 새겨주시는 친필을 받아안으며 아이들은 스스로 읽었다.

『아버지 김정은원수님!』

평양시 모란산동산소년단아영소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신 그날 동산은 떠나는 아영생활을 떠나고 시간 거다라시여 영광의 기념사진을 함께 찍어주신 그 자리에 나도 있었다고 뽐내는 자식들의 행복하던 이야기를 들으며 이 나라의 아버지, 어머니들도 뜨거운 눈물속에 격정을 미지쳤다.

『이 행복을 위하여, 이 행복을 위하여 무엇이든 나라를 위하여 바쁘신 원수님께서 그 귀중한 시간을 아끼고 이 바쁘신 단입니까!』

오늘은 최전선아이들의 영양원 학교, 오늘은 북부해역지역 아이들의 눈부신 아영길...

꿈이 과도쳐오는 우리 아이들의 이 행복은 정녕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 바람도 비도 막아주고 불구름도 다 막아주는 위대한 어머니의 유훈의 사랑이 낮은 김정은시대의 참모습이었다.

두해사이에 여러차례나 송도원 국제소년단아영소를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최전선으로 나가시던 길에 아영소 개건공사가 끝났다는 보고를 단갑게 받으시고 오셨던 두해전 4월의 봄날에 하신 뜨거운 말씀이 오늘도 인민의 가슴을 적시고있다.

『나는 작품과 참애한 대령전을 벌리면서도 언제나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그려보곤 합니다.』

원수님께서는 참애한 대령전에서 이 러보다는 후대들의 행복한 대령! 우리 아이들이 옛날 왕들도 송고할 궁전같은 아영소에서 마음껏 웃고 떠들며 행복의 노래를 부르며 자식을 이어나오도록 기쁘시여 최전선초소에 아영소로!

참으로 혁명의 모진 돌풍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노래를 지켜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인민은 영원히 간직 이어나오도록 기쁘시여 최전선초소에 아영소로!

참으로 혁명의 모진 돌풍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노래를 지켜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인민은 영원히 간직 이어나오도록 기쁘시여 최전선초소에 아영소로!

어는 어떻게 생겨났었고 현대적으로 일떠선 위생과학자후배지구에서 우리 원수님 제일먼저 왔으셨던 은성구역 위생소학교 운동장의 인공 잔디는 어떻게 펼쳐졌었는가.

이후 다 활용수 없다. 분수줄이 장이며 마시실수기장, 송도원국제 소년단아영소, 만경대소년단아영소, 평양중동화원...

사람들이여, 다시 한번 세상을 둘러보시라, 사회주의 우리 조국에서처럼 한 나라의 명도자가 하루형이 되어 아이들이 입을 표류하며 아이들이 배고다달 펴가방과 아이들이 쓸 학습용품이 어디까지 세심히 보살펴내어 있었는가,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한 육아원과 육육원, 학원의 원장이 되고 아이들의 건강을 돌보는 전문병원의 설계자, 시공주, 건설주가 되어주며 아이들이 음악회도 축구도 함께 보고 나어던 학생들의 축구 경기도 함께 보아온 그런 역사가 기록된적은 또 있었는가.

은 나라 장선에 아이들이 부르는 행복의 노래가 울린다.

원수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아영소로

참으로 존엄한 나날이었다. 크나큰 상심의 아픔을 안고 산란초목도 몸부림치는 민족의 대극살일에 거중스러운 원수들은 모든 부속변화를 용용하며 원수에게 용납 대역위를 저질렀었다. 위대한 어머니의 품에서 누려온 우리의 모든 행복을 통째로 빼앗으려고 피눈이 어찌 넘어졌다.

그러나 사회주의 이 땅에서 울리는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막을수도 꺾을수도 없었다.

생각도 깊어지는 우리의 눈앞에 주제 101(2012)년 설명정읍회원 달달이 생생히 떠오른다.

자재로운 어머니의 모습이 길어길어 새겨졌다.

하지만 이제 머지않아 원아버지의 원심같은 성과도 같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에 떠맡겨져 꽃봉오리 명당자리들에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한 육아원과 육육원이 일떠서고 원아버지의 다정한 사랑이 담긴 그의 말씀속에 황금해의 새 역사를 창조하러 《이제여경》을 펼치실 용대한 구상이 담겨져있다는 것을 아지 그 누구도 모르고있었다.

우리 아이들이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행복의 상상속에 온 온 오늘에 와서 우리 인민은 4년전 설명정읍회회로 뒤지 않고서 원아들을 위해 걸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깊어야말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지켜 주신 후대들의 밝은 웃음소리, 광명한 노래소리를 이 세상 그 누구도 단련순간도 꺾지도 막을수 없다는것을 엄숙히 선언하신 역사의 길이였음을 심장으로 다시금 짐작하고있다.

『아이들이 높은 평등과 풍광사나온 바다길, 하늘길도 가뭏없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맑고 힘찬 전선길은 년년이 이어져갔다.』

『아버지 김정은원수님!』

평양시 모란산동산소년단아영소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신 그날 동산은 떠나는 아영생활을 떠나고 시간 거다라시여 영광의 기념사진을 함께 찍어주신 그 자리에 나도 있었다고 뽐내는 자식들의 행복하던 이야기를 들으며 이 나라의 아버지, 어머니들도 뜨거운 눈물속에 격정을 미지쳤다.

『이 행복을 위하여, 이 행복을 위하여 무엇이든 나라를 위하여 바쁘신 원수님께서 그 귀중한 시간을 아끼고 이 바쁘신 단입니까!』

원수님 계시여 세상에 부름없어라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 오늘도 때아리쳐들!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무릎!』

4년전 조선소년단창립 6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에 열히 참석하시여 하신 축하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겨져있다. 『우리는 원수님께서 그 귀중한 시간을 아끼고 이 바쁘신 단입니까!』

원수님 계시여 세상에 부름없어라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 오늘도 때아리쳐들!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무릎!』

4년전 조선소년단창립 6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에 열히 참석하시여 하신 축하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겨져있다. 『우리는 원수님께서 그 귀중한 시간을 아끼고 이 바쁘신 단입니까!』

원수님 계시여 세상에 부름없어라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 오늘도 때아리쳐들!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무릎!』

4년전 조선소년단창립 6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에 열히 참석하시여 하신 축하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겨져있다. 『우리는 원수님께서 그 귀중한 시간을 아끼고 이 바쁘신 단입니까!』

원수님 계시여 세상에 부름없어라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 오늘도 때아리쳐들!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무릎!』

4년전 조선소년단창립 6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에 열히 참석하시여 하신 축하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겨져있다. 『우리는 원수님께서 그 귀중한 시간을 아끼고 이 바쁘신 단입니까!』

원수님 계시여 세상에 부름없어라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 오늘도 때아리쳐들!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무릎!』

4년전 조선소년단창립 6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에 열히 참석하시여 하신 축하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겨져있다. 『우리는 원수님께서 그 귀중한 시간을 아끼고 이 바쁘신 단입니까!』

원수님 계시여 세상에 부름없어라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 오늘도 때아리쳐들!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무릎!』

4년전 조선소년단창립 6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에 열히 참석하시여 하신 축하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겨져있다. 『우리는 원수님께서 그 귀중한 시간을 아끼고 이 바쁘신 단입니까!』

원수님 계시여 세상에 부름없어라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 오늘도 때아리쳐들!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무릎!』

4년전 조선소년단창립 6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에 열히 참석하시여 하신 축하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겨져있다. 『우리는 원수님께서 그 귀중한 시간을 아끼고 이 바쁘신 단입니까!』

원수님 계시여 세상에 부름없어라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 오늘도 때아리쳐들!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무릎!』

4년전 조선소년단창립 6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에 열히 참석하시여 하신 축하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겨져있다. 『우리는 원수님께서 그 귀중한 시간을 아끼고 이 바쁘신 단입니까!』

원수님 계시여 세상에 부름없어라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 오늘도 때아리쳐들!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무릎!』

4년전 조선소년단창립 6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에 열히 참석하시여 하신 축하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겨져있다. 『우리는 원수님께서 그 귀중한 시간을 아끼고 이 바쁘신 단입니까!』

원수님 계시여 세상에 부름없어라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 오늘도 때아리쳐들!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무릎!』

4년전 조선소년단창립 6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에 열히 참석하시여 하신 축하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겨져있다. 『우리는 원수님께서 그 귀중한 시간을 아끼고 이 바쁘신 단입니까!』

원수님 계시여 세상에 부름없어라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 오늘도 때아리쳐들!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무릎!』

4년전 조선소년단창립 6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에 열히 참석하시여 하신 축하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겨져있다. 『우리는 원수님께서 그 귀중한 시간을 아끼고 이 바쁘신 단입니까!』

원수님 계시여 세상에 부름없어라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 오늘도 때아리쳐들!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무릎!』

4년전 조선소년단창립 6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에 열히 참석하시여 하신 축하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겨져있다. 『우리는 원수님께서 그 귀중한 시간을 아끼고 이 바쁘신 단입니까!』

원수님 계시여 세상에 부름없어라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 오늘도 때아리쳐들!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무릎!』

4년전 조선소년단창립 6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에 열히 참석하시여 하신 축하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겨져있다. 『우리는 원수님께서 그 귀중한 시간을 아끼고 이 바쁘신 단입니까!』

원수님 계시여 세상에 부름없어라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 오늘도 때아리쳐들!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무릎!』

4년전 조선소년단창립 6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에 열히 참석하시여 하신 축하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겨져있다. 『우리는 원수님께서 그 귀중한 시간을 아끼고 이 바쁘신 단입니까!』

원수님 계시여 세상에 부름없어라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 오늘도 때아리쳐들!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무릎!』

4년전 조선소년단창립 6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에 열히 참석하시여 하신 축하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겨져있다. 『우리는 원수님께서 그 귀중한 시간을 아끼고 이 바쁘신 단입니까!』

원수님 계시여 세상에 부름없어라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 오늘도 때아리쳐들!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무릎!』

4년전 조선소년단창립 6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에 열히 참석하시여 하신 축하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겨져있다. 『우리는 원수님께서 그 귀중한 시간을 아끼고 이 바쁘신 단입니까!』

원수님 계시여 세상에 부름없어라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 오늘도 때아리쳐들!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무릎!』

4년전 조선소년단창립 6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에 열히 참석하시여 하신 축하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겨져있다. 『우리는 원수님께서 그 귀중한 시간을 아끼고 이 바쁘신 단입니까!』

원수님 계시여 세상에 부름없어라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 오늘도 때아리쳐들!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무릎!』

4년전 조선소년단창립 6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에 열히 참석하시여 하신 축하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겨져있다. 『우리는 원수님께서 그 귀중한 시간을 아끼고 이 바쁘신 단입니까!』



원수님 계시여 세상에 부름없어라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 오늘도 때아리쳐들!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무릎!』

4년전 조선소년단창립 6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에 열히 참석하시여 하신 축하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겨져있다. 『우리는 원수님께서 그 귀중한 시간을 아끼고 이 바쁘신 단입니까!』

원수님 계시여 세상에 부름없어라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 오늘도 때아리쳐들!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무릎!』

4년전 조선소년단창립 6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에 열히 참석하시여 하신 축하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겨져있다. 『우리는 원수님께서 그 귀중한 시간을 아끼고 이 바쁘신 단입니까!』

원수님 계시여 세상에 부름없어라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 오늘도 때아리쳐들!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무릎!』

4년전 조선소년단창립 6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에 열히 참석하시여 하신 축하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겨져있다. 『우리는 원수님께서 그 귀중한 시간을 아끼고 이 바쁘신 단입니까!』

원수님 계시여 세상에 부름없어라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 오늘도 때아리쳐들!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무릎!』

4년전 조선소년단창립 6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에 열히 참석하시여 하신 축하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겨져있다. 『우리는 원수님께서 그 귀중한 시간을 아끼고 이 바쁘신 단입니까!』

원수님 계시여 세상에 부름없어라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 오늘도 때아리쳐들!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무릎!』

4년전 조선소년단창립 6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에 열히 참석하시여 하신 축하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겨져있다. 『우리는 원수님께서 그 귀중한 시간을 아끼고 이 바쁘신 단입니까!』

원수님 계시여 세상에 부름없어라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 오늘도 때아리쳐들!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무릎!』

4년전 조선소년단창립 6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에 열히 참석하시여 하신 축하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겨져있다. 『우리는 원수님께서 그 귀중한 시간을 아끼고 이 바쁘신 단입니까!』

원수님 계시여 세상에 부름없어라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 오늘도 때아리쳐들!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무릎!』

4년전 조선소년단창립 6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에 열히 참석하시여 하신 축하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겨져있다. 『우리는 원수님께서 그 귀중한 시간을 아끼고 이 바쁘신 단입니까!』

원수님 계시여 세상에 부름없어라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 오늘도 때아리쳐들!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무릎!』

4년전 조선소년단창립 6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에 열히 참석하시여 하신 축하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겨져있다. 『우리는 원수님께서 그 귀중한 시간을 아끼고 이 바쁘신 단입니까!』

원수님 계시여 세상에 부름없어라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 오늘도 때아리쳐들!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무릎!』

4년전 조선소년단창립 6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에 열히 참석하시여 하신 축하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겨져있다. 『우리는 원수님께서 그 귀중한 시간을 아끼고 이 바쁘신 단입니까!』

원수님 계시여 세상에 부름없어라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 오늘도 때아리쳐들!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무릎!』

4년전 조선소년단창립 6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에 열히 참석하시여 하신 축하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겨져있다. 『우리는 원수님께서 그 귀중한 시간을 아끼고 이 바쁘신 단입니까!』

원수님 계시여 세상에 부름없어라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 오늘도 때아리쳐들!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무릎!』

4년전 조선소년단창립 6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에 열히 참석하시여 하신 축하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겨져있다. 『우리는 원수님께서 그 귀중한 시간을 아끼고 이 바쁘신 단입니까!』

원수님 계시여 세상에 부름없어라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 오늘도 때아리쳐들!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무릎!』

4년전 조선소년단창립 6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에 열히 참석하시여 하신 축하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겨져있다. 『우리는 원수님께서 그 귀중한 시간을 아끼고 이 바쁘신 단입니까!』

원수님 계시여 세상에 부름없어라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 오늘도 때아리쳐들!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무릎!』

4년전 조선소년단창립 6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에 열히 참석하시여 하신 축하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겨져있다. 『우리는 원수님께서 그 귀중한 시간을 아끼고 이 바쁘신 단입니까!』

원수님 계시여 세상에 부름없어라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 오늘도 때아리쳐들!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무릎!』

4년전 조선소년단창립 6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에 열히 참석하시여 하신 축하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겨져있다. 『우리는 원수님께서 그 귀중한 시간을 아끼고 이 바쁘신 단입니까!』

원수님 계시여 세상에 부름없어라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 오늘도 때아리쳐들!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무릎!』

4년전 조선소년단창립 6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에 열히 참석하시여 하신 축하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겨져있다. 『우리는 원수님께서 그 귀중한 시간을 아끼고 이 바쁘신 단입니까!』

원수님 계시여 세상에 부름없어라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 오늘도 때아리쳐들!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무릎!』

4년전 조선소년단창립 6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에 열히 참석하시여 하신 축하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겨져있다. 『우리는 원수님께서 그 귀중한 시간을 아끼고 이 바쁘신 단입니까!』

원수님 계시여 세상에 부름없어라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 오늘도 때아리쳐들!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무릎!』

4년전 조선소년단창립 6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에 열히 참석하시여 하신 축하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겨져있다. 『우리는 원수님께서 그 귀중한 시간을 아끼고 이 바쁘신 단입니까!』

원수님 계시여 세상에 부름없어라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 오늘도 때아리쳐들!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무릎!』

4년전 조선소년단창립 6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에 열히 참석하시여 하신 축하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겨져있다. 『우리는 원수님께서 그 귀중한 시간을 아끼고 이 바쁘신 단입니까!』

절세의 위인, 불패의 강국에 대한 열렬한 격찬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한 민족의 위대성은 그 수령의 위대성에 달려있으며 한 인민의 미래는 그 수령의 현명성에 달려있다.**》

격동의 2016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이해에 우리 조국은 문명의 천지개벽으로 그 모습이 더욱 달라지고 우리 당의 역사부름으로 인민은 새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민의 주인공으로 되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끝

없이 경제공세와 군사적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주체조선, 선군조선의 전략적지위를 비상이 높여주는 사면들이 편이 일어났다. 상상을 초월하는 시련의 중앙속에서도 만리마기상으로 내달리는 선만군민의 무궁무진한 힘은 놀라운 기적들을 창조하였다.

주체조선의 이 전설적인 현실을 목격하면서 남녘겨레들은 절세의 위인을 모시어 나라가 강하고 민족의 영예가 빛나게 된다는 진리를 더욱 사무치게 깨달았다.

구축되어 유일적명도체제가 제도적으로 완성되었다. >>>

우리 조국을 존엄높은 정치사상강국, 청년강국, 과학기술강국, 핵강국의 지위에 우뚝 올려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호모의 목소리도 그칠 줄 몰랐다. 특히 남조선 각계는 북을 내부로부터 봉쇄시키려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과 심리전이 전례없이 악랄해지고 그 주되는 목표가 새 세대 청년들이라는 것을 고려해볼 때 북의 청년들이 흔들렸을 때를 따라 끝까지 나아가고있는 것은 참으로 경탄할만 한것이라고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정치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로 높이 울려나왔다. 스승의 정책적인 명도와 자애로운 손길에 의해 남에 남마다 떨쳐지는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대의욕은 피피점점 총에 대한 울분으로 치밀한 남조선인민들 속에서 투동같은 반향을 일으켰다.

한중도 안되는 특권층, 부유층들이 적대타협의 근로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여 강권과 진흥, 부정부패행위를 일삼는 반인민적인 사회, 자살사주에서 제 1위를 차지하는 자우감은 땅에서 질타에 빠지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우리 공화국을 정말 믿어지지 않는 별천지였다.

특히 참혹한 제단이 북으로 바뀌우고 눈부신 선군이 솟아오른 북부피해지역에서의 기적적인 인민적정열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그들은 자식의 불행은 가사주려 한몸을 사수없이 내는 어머니, 천만자식들을 품어 안아주려 한눈이 다 막아 버린 운명도 미래도 보살펴주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모습에 보았다고 그 용이아날로 자기들도

인저살, 만드신 인제야 할 진정한 삶의 용임을 심장으로 절감했다.

하기에 그들은 격정의 목소리를 터뜨렸다.

아무리 세상을 둘러보아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자고

뜨겁게 호소하시든 지도자는 김정은원수님밖에 없으며 정녕그이는 민족의 절실한 명도자, 세계적인 위인이시라고, 미래의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실분도 이고실분도 경애하는 원수님뿐이시라고.

인민의 열화같은 신뢰를 받는다는 정도사

절세위인에 대한 남녘인민들의 찬란과 경모심은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서 높이 추대되시자 최절정에 달하였다.

남조선의 신문, 방송들은 일제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원호하는 대회참가자들에게 담배하시는 사진본편을 모시고 《김정은제1비서, 세계적인 당위원장으로서》,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 추대》, 《김정은위원장 유일지도자추대의미와 과제》 등의 제목으로 관련소식들을 대서특필하였다.

남조선 각계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의 위원장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맡으신것을 위대한 김정은위원장을 영연한 총비서, 영연한 국방위원장으로 높이 모시려는 그들의 숭고한 총경과 도덕의리심의 발현이라고 격찬하였다.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사회주의교수와 승려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보고》, 《현대수명들

로부터 이어받은 로선과 정책을 계승한 보고》라고 하면서 역사적인 당대회보고는 북이 제2로 수세에 몰렸다고 떠들던 미국과 피피당국의 나팔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지난 기간 서방세계가 그 무슨 《북의 내부불안》에 대해 끊임없이 떠들었지만 오히려 북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리브로 정역적인 명도로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면에서 더 큰 비약을 이어나가고있다. 김정은은제게는 선군화해 공고해졌다고 평하였다. 이어 피피전세력과 보수언론들속에서도 《김정은시대는 이미 인락되어 자기 년분을 세기고있다.》, 《북적제를 인정하고 새롭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특히 참혹한 제단이 북으로 바뀌우고 눈부신 선군이 솟아오른 북부피해지역에서의 기적적인 인민적정열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그들은 자식의 불행은 가사주려 한몸을 사수없이 내는 어머니, 천만자식들을 품어 안아주려 한눈이 다 막아 버린 운명도 미래도 보살펴주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모습에 보았다고 그 용이아날로 자기들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원호하는 대회참가자들에게 담배하시는 사진본편을 모시고 《김정은제1비서, 세계적인 당위원장으로서》,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 추대》, 《김정은위원장 유일지도자추대의미와 과제》 등의 제목으로 관련소식들을 대서특필하였다.

남조선의 신문, 방송들은 일제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원호하는 대회참가자들에게 담배하시는 사진본편을 모시고 《김정은제1비서, 세계적인 당위원장으로서》,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 추대》, 《김정은위원장 유일지도자추대의미와 과제》 등의 제목으로 관련소식들을 대서특필하였다.

남조선의 신문, 방송들은 일제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원호하는 대회참가자들에게 담배하시는 사진본편을 모시고 《김정은제1비서, 세계적인 당위원장으로서》,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 추대》, 《김정은위원장 유일지도자추대의미와 과제》 등의 제목으로 관련소식들을 대서특필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사회주의교수와 승려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보고》, 《현대수명들

로부터 이어받은 로선과 정책을 계승한 보고》라고 하면서 역사적인 당대회보고는 북이 제2로 수세에 몰렸다고 떠들던 미국과 피피당국의 나팔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지난 기간 서방세계가 그 무슨 《북의 내부불안》에 대해 끊임없이 떠들었지만 오히려 북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리브로 정역적인 명도로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면에서 더 큰 비약을 이어나가고있다. 김정은은제게는 선군화해 공고해졌다고 평하였다. 이어 피피전세력과 보수언론들속에서도 《김정은시대는 이미 인락되어 자기 년분을 세기고있다.》, 《북적제를 인정하고 새롭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특히 참혹한 제단이 북으로 바뀌우고 눈부신 선군이 솟아오른 북부피해지역에서의 기적적인 인민적정열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그들은 자식의 불행은 가사주려 한몸을 사수없이 내는 어머니, 천만자식들을 품어 안아주려 한눈이 다 막아 버린 운명도 미래도 보살펴주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모습에 보았다고 그 용이아날로 자기들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원호하는 대회참가자들에게 담배하시는 사진본편을 모시고 《김정은제1비서, 세계적인 당위원장으로서》,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 추대》, 《김정은위원장 유일지도자추대의미와 과제》 등의 제목으로 관련소식들을 대서특필하였다.

남조선의 신문, 방송들은 일제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원호하는 대회참가자들에게 담배하시는 사진본편을 모시고 《김정은제1비서, 세계적인 당위원장으로서》,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 추대》, 《김정은위원장 유일지도자추대의미와 과제》 등의 제목으로 관련소식들을 대서특필하였다.

남조선의 신문, 방송들은 일제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원호하는 대회참가자들에게 담배하시는 사진본편을 모시고 《김정은제1비서, 세계적인 당위원장으로서》,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 추대》, 《김정은위원장 유일지도자추대의미와 과제》 등의 제목으로 관련소식들을 대서특필하였다.

남조선의 신문, 방송들은 일제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원호하는 대회참가자들에게 담배하시는 사진본편을 모시고 《김정은제1비서, 세계적인 당위원장으로서》,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 추대》, 《김정은위원장 유일지도자추대의미와 과제》 등의 제목으로 관련소식들을 대서특필하였다.

반역정권<<이 깨구려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다>>

청와대파수군들의 히스레리적광기

피피들이 호전적광기 때를 비극적지지를 당해오며 무모하게 선택해왔다. 얼마전 미력추진잠수함을 경상남도 진해해군기지에서 끌어들이던 피피들은 도미원관들로 무장한 피피정비대로 40여기를 남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호전광들은 《미상정국을 노린 북의 도발역사》, 《강력한 경고》, 《정형정리과정》이니 하며 비평침을 쏘아대었다.

당초부터 청와대의 파수병노릇이나 하는 피피정비대원들이 외세의 정정정비대를 기대할것이며 투쟁무지대 외화 우물거리는 수탈함을 하고있는데 대해 조소를 금할수 없다. 피피들이 미력추진잠수함을 비롯한 북침공격수단들을 끌어들이며 그 무슨 《도발역사》, 《경고》이니 하고 너털거린것은 사실상 당해가는 제 집인척지로부터 오는 국도의 불안정성이 벗어나보려는 히스레리정비대의 풍기에 강경적에서 살구름을 찾아보려는 무모한 대결정당이다.

이제 반역정권이 붕괴될지 갈수 없는 최악의 위기장태에 빠진 피피들은 안으로는 《북의 도발》이니 하며 《도발역사》를 들고외역 용이전 보수세력들을 다시 끌어모으고 밖으로는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공격 군사적도발을 걸며 강경을 격화시키고있다. 얼마전 미력추진잠수함을 끌어들이는 피피정비대원들이 기신기신 거니오는 피피정비대원들의 파수관직업으로 정정정비대를 통한 《북의 기습도발가능성》을 운운하며 《단호하게 응징》이라고 떠들며 풍문 사실과 피피국방부가 미국에 《북의 전락, 전술적도발》에 대응한 감시, 정찰력향상장을 구축한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북의 도발》에 대해 요란하게 광고하며 외세와 공모격타하여 북침전쟁책동을 강화할 리 요 전

비난과 조롱거리가 된 정치미숙아

이제 반역정권이 붕괴될지 갈수 없는 최악의 위기장태에 빠진 피피들은 안으로는 《북의 도발》이니 하며 《도발역사》를 들고외역 용이전 보수세력들을 다시 끌어모으고 밖으로는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공격 군사적도발을 걸며 강경을 격화시키고있다. 얼마전 미력추진잠수함을 끌어들이는 피피정비대원들이 기신기신 거니오는 피피정비대원들의 파수관직업으로 정정정비대를 통한 《북의 기습도발가능성》을 운운하며 《단호하게 응징》이라고 떠들며 풍문 사실과 피피국방부가 미국에 《북의 전락, 전술적도발》에 대응한 감시, 정찰력향상장을 구축한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단평 암독사가 흘린 <피노들>

이제 반역정권이 붕괴될지 갈수 없는 최악의 위기장태에 빠진 피피들은 안으로는 《북의 도발》이니 하며 《도발역사》를 들고외역 용이전 보수세력들을 다시 끌어모으고 밖으로는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공격 군사적도발을 걸며 강경을 격화시키고있다. 얼마전 미력추진잠수함을 끌어들이는 피피정비대원들이 기신기신 거니오는 피피정비대원들의 파수관직업으로 정정정비대를 통한 《북의 기습도발가능성》을 운운하며 《단호하게 응징》이라고 떠들며 풍문 사실과 피피국방부가 미국에 《북의 전락, 전술적도발》에 대응한 감시, 정찰력향상장을 구축한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수용을 열기 위한 최후발악

이제 반역정권이 붕괴될지 갈수 없는 최악의 위기장태에 빠진 피피들은 안으로는 《북의 도발》이니 하며 《도발역사》를 들고외역 용이전 보수세력들을 다시 끌어모으고 밖으로는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공격 군사적도발을 걸며 강경을 격화시키고있다. 얼마전 미력추진잠수함을 끌어들이는 피피정비대원들이 기신기신 거니오는 피피정비대원들의 파수관직업으로 정정정비대를 통한 《북의 기습도발가능성》을 운운하며 《단호하게 응징》이라고 떠들며 풍문 사실과 피피국방부가 미국에 《북의 전락, 전술적도발》에 대응한 감시, 정찰력향상장을 구축한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박근혜를 감옥으로! 량심수를 석방하라!》

남조선시민사회단체 성원들 투쟁 전개

남조선인민리테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남조선의 동맹, 종교계, 예술계 등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이 15일 서울구치소앞에서 박근혜를 구속하고 량심수를 석방할것을 요구하는 《한데의 밤》 행사를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정치공작, 공인인압 국정조사 실시》, 《량

심수 석방, 보안법 폐지! 정보원 해체》라는 글이 써진 현수막을 내걸고 《박근혜를 감옥으로, 량심수를 석방하라!》의 구호를 외쳤다.

민중총집회를 주도하였다고 하여 민주로를 위원장에게 중형을 선고한것은 부당한 탄압수용이며 참담하기 그지없는것이라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이제 반역정권이 붕괴될지 갈수 없는 최악의 위기장태에 빠진 피피들은 안으로는 《북의 도발》이니 하며 《도발역사》를 들고외역 용이전 보수세력들을 다시 끌어모으고 밖으로는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공격 군사적도발을 걸며 강경을 격화시키고있다. 얼마전 미력추진잠수함을 끌어들이는 피피정비대원들이 기신기신 거니오는 피피정비대원들의 파수관직업으로 정정정비대를 통한 《북의 기습도발가능성》을 운운하며 《단호하게 응징》이라고 떠들며 풍문 사실과 피피국방부가 미국에 《북의 전락, 전술적도발》에 대응한 감시, 정찰력향상장을 구축한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재미동포들 조불투쟁을 계속 벌려나갈 의지 표명

이제 반역정권이 붕괴될지 갈수 없는 최악의 위기장태에 빠진 피피들은 안으로는 《북의 도발》이니 하며 《도발역사》를 들고외역 용이전 보수세력들을 다시 끌어모으고 밖으로는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공격 군사적도발을 걸며 강경을 격화시키고있다. 얼마전 미력추진잠수함을 끌어들이는 피피정비대원들이 기신기신 거니오는 피피정비대원들의 파수관직업으로 정정정비대를 통한 《북의 기습도발가능성》을 운운하며 《단호하게 응징》이라고 떠들며 풍문 사실과 피피국방부가 미국에 《북의 전락, 전술적도발》에 대응한 감시, 정찰력향상장을 구축한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조남수 그들은 선인하였다

이제 반역정권이 붕괴될지 갈수 없는 최악의 위기장태에 빠진 피피들은 안으로는 《북의 도발》이니 하며 《도발역사》를 들고외역 용이전 보수세력들을 다시 끌어모으고 밖으로는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공격 군사적도발을 걸며 강경을 격화시키고있다. 얼마전 미력추진잠수함을 끌어들이는 피피정비대원들이 기신기신 거니오는 피피정비대원들의 파수관직업으로 정정정비대를 통한 《북의 기습도발가능성》을 운운하며 《단호하게 응징》이라고 떠들며 풍문 사실과 피피국방부가 미국에 《북의 전락, 전술적도발》에 대응한 감시, 정찰력향상장을 구축한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이제 반역정권이 붕괴될지 갈수 없는 최악의 위기장태에 빠진 피피들은 안으로는 《북의 도발》이니 하며 《도발역사》를 들고외역 용이전 보수세력들을 다시 끌어모으고 밖으로는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공격 군사적도발을 걸며 강경을 격화시키고있다. 얼마전 미력추진잠수함을 끌어들이는 피피정비대원들이 기신기신 거니오는 피피정비대원들의 파수관직업으로 정정정비대를 통한 《북의 기습도발가능성》을 운운하며 《단호하게 응징》이라고 떠들며 풍문 사실과 피피국방부가 미국에 《북의 전락, 전술적도발》에 대응한 감시, 정찰력향상장을 구축한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남조선인민리테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남조선의 동맹, 종교계, 예술계 등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이 15일 서울구치소앞에서 박근혜를 구속하고 량심수를 석방할것을 요구하는 《한데의 밤》 행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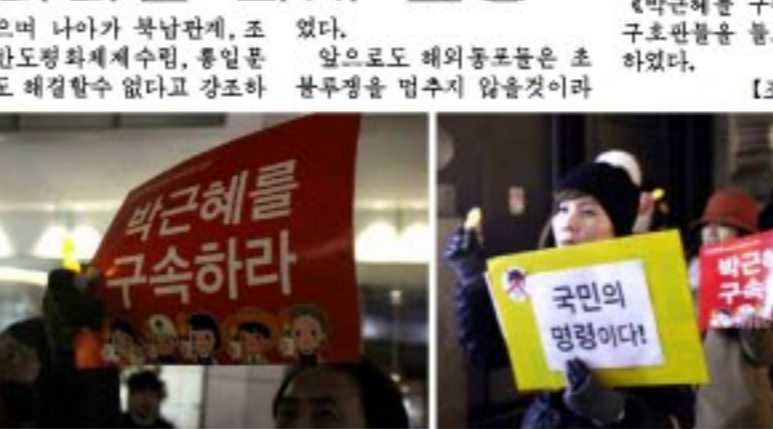
이제 반역정권이 붕괴될지 갈수 없는 최악의 위기장태에 빠진 피피들은 안으로는 《북의 도발》이니 하며 《도발역사》를 들고외역 용이전 보수세력들을 다시 끌어모으고 밖으로는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공격 군사적도발을 걸며 강경을 격화시키고있다. 얼마전 미력추진잠수함을 끌어들이는 피피정비대원들이 기신기신 거니오는 피피정비대원들의 파수관직업으로 정정정비대를 통한 《북의 기습도발가능성》을 운운하며 《단호하게 응징》이라고 떠들며 풍문 사실과 피피국방부가 미국에 《북의 전락, 전술적도발》에 대응한 감시, 정찰력향상장을 구축한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이제 반역정권이 붕괴될지 갈수 없는 최악의 위기장태에 빠진 피피들은 안으로는 《북의 도발》이니 하며 《도발역사》를 들고외역 용이전 보수세력들을 다시 끌어모으고 밖으로는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공격 군사적도발을 걸며 강경을 격화시키고있다. 얼마전 미력추진잠수함을 끌어들이는 피피정비대원들이 기신기신 거니오는 피피정비대원들의 파수관직업으로 정정정비대를 통한 《북의 기습도발가능성》을 운운하며 《단호하게 응징》이라고 떠들며 풍문 사실과 피피국방부가 미국에 《북의 전락, 전술적도발》에 대응한 감시, 정찰력향상장을 구축한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이제 반역정권이 붕괴될지 갈수 없는 최악의 위기장태에 빠진 피피들은 안으로는 《북의 도발》이니 하며 《도발역사》를 들고외역 용이전 보수세력들을 다시 끌어모으고 밖으로는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공격 군사적도발을 걸며 강경을 격화시키고있다. 얼마전 미력추진잠수함을 끌어들이는 피피정비대원들이 기신기신 거니오는 피피정비대원들의 파수관직업으로 정정정비대를 통한 《북의 기습도발가능성》을 운운하며 《단호하게 응징》이라고 떠들며 풍문 사실과 피피국방부가 미국에 《북의 전락, 전술적도발》에 대응한 감시, 정찰력향상장을 구축한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이제 반역정권이 붕괴될지 갈수 없는 최악의 위기장태에 빠진 피피들은 안으로는 《북의 도발》이니 하며 《도발역사》를 들고외역 용이전 보수세력들을 다시 끌어모으고 밖으로는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공격 군사적도발을 걸며 강경을 격화시키고있다. 얼마전 미력추진잠수함을 끌어들이는 피피정비대원들이 기신기신 거니오는 피피정비대원들의 파수관직업으로 정정정비대를 통한 《북의 기습도발가능성》을 운운하며 《단호하게 응징》이라고 떠들며 풍문 사실과 피피국방부가 미국에 《북의 전락, 전술적도발》에 대응한 감시, 정찰력향상장을 구축한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이제 반역정권이 붕괴될지 갈수 없는 최악의 위기장태에 빠진 피피들은 안으로는 《북의 도발》이니 하며 《도발역사》를 들고외역 용이전 보수세력들을 다시 끌어모으고 밖으로는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공격 군사적도발을 걸며 강경을 격화시키고있다. 얼마전 미력추진잠수함을 끌어들이는 피피정비대원들이 기신기신 거니오는 피피정비대원들의 파수관직업으로 정정정비대를 통한 《북의 기습도발가능성》을 운운하며 《단호하게 응징》이라고 떠들며 풍문 사실과 피피국방부가 미국에 《북의 전락, 전술적도발》에 대응한 감시, 정찰력향상장을 구축한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